

[성명] 창원시의회의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 폐지를 환영한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7월 23일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한은정 의원)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로써 창원시에서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이 폐지되었고,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00리터 봉투(무게 25Kg 이하)를 폐지하고 75리터 봉투(19Kg 이하)를 신설하였다.

창원시의회는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리터 봉투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 및 시대적 흐름인 점을 감안하여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75리터를 신설하였다.

100리터 봉투의 생활폐기물 무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25kg을 넘나들고 있어 환경미화원 골병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에 시대 흐름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100리터 규격을 폐지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75리터 봉투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창원시의 조례 개정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산업재해의 15%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옮기다가 부상 당하는 현실을 바꾸는데 많이 이바지할 것이다.

앞으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등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군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상남도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기에,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이라 굳게 믿는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0.8.1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